

The Educational Approach and Strategy Fostering Community Spirit in Catholic Schools

Mankeun Yo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ducational method and its practical strategy that help foster the community spirit in Catholic schools as it regards schools as community.

CONTENTS This study intended to approach Catholic schools in community aspect as an alternative solution that can encourage to cope with various problems at schools. First, it explored the social background that created the term ‘community’ and the concept of the community applied in Catholic ecclesiology. Second, it examined the definition of ‘synodalitas’ and its practical method, for it is perceived as the tool to edify the community spirit in Catholic schools. Third, it introduced the preventive system of Don Bosco that can be applicable in fostering the community spirit, since the preventive system composed of religion, reason, and loving-kindness, can be an strategy to preserve the Catholic values and restore the community spirit in Catholic schools.

RESULTS The preventive system can be a proper tool to recover the community spirit in Catholic schools; First, it can motivate community members to practice and share the Catholic values and mission. Second, the preventive system can lead community members to build relationships regardless their roles and social positions, while transforming their attitudes and behaviors. Third, the practice of ‘assistenza’ promotes school environment to be familiar and familial that help enhance the community spirits as a practical strategy.

KEY WORDS Educational community, school community, Catholic school, the preventive system of Don Bosco, restoration of community spirit

* **Corresponding to** Mankeun Yoon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mail : yunmose@catholic.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가톨릭학교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교육적 접근과 전략

윤만근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체적 관점에서 가톨릭학교를 이해하고, 학교의 공동체성을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교육적 접근에 대해 탐색하고 그 실천적 전략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가톨릭학교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교를 공동체적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동체’의 용어 등장에 대한 사회적 배경과 가톨릭 교회론에 적용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교육공동체로서 가톨릭 학교의 공동체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에 대한 의미와 실천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나아가,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실천적 접근으로서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을 소개하여, 종교, 이성, 친절한 사랑으로 구성된 돈 보스코 ‘예방교육’의 실천이 가톨릭학교의 가치를 보존하고 공동체로서 학교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결론 교육공동체로서 돈 보스코 ‘예방교육’의 실천은 가톨릭학교의 공동체성 회복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첫째, 교육공동체로서 학교에게 부여된 가톨릭의 가치와 사명을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도록 이끈다. 둘째, 예방교육의 실천은 교육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인격적 관계를 맺도록 격려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위에 변화를 유도한다. 셋째, 아씨스텐자(assistenza)’의 실천은 친근하고 가족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동체로서의 학교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천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주제어 교육공동체, 학교공동체, 가톨릭학교,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 공동체성 회복

I. 서 론

교육은 인간의 삶을 성장시키고 미래의 삶을 보장하는 기회로 이해되어져 왔다. 기회로서의 교육은 학습자의 잠재적인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킬 뿐 아니라, 사회 계층 간의 차별적 간격을 줄이는 처방제로 간주되기도 하였다(Serna & Woulfe, 2017: 1). 하지만, 교육이 사회적 불균형을 조장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의 계층화 현상을 지속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주장(Demaine, 2003: 125-126)은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면은 성적중심주의나 입시 위주로 서열화된 학교문화에 투영되어 나타나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들의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에서(Won, 2009: 145), 사회적 계층화 현상은 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 뚜렷하게 재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학교는 가르침과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공간이 되고,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독자 생존의 법칙을 가르치며 왜곡된 인간성을 배우는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 나아가, 위계적이며 권위주의적 태도가 지배하는 학교문화는 교사와 학생, 학생들 사이에서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며(Lee, Kim, & Kim, 2015: 436), 학생들의 존엄과 삶의 질을 훼손하고 학업 중단과 같은 학생들의 탈학교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학생들의 전인적 교육을 지향하며 복음화의 가치를 실천적 사명으로 지닌 가톨릭학교도 결코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사회적 문제임을 직시하게 된다.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은 가톨릭학교의 기능과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그 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학교는 조직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져 왔다. 학교를 ‘조직’적인 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학교를 목적과 수단이 결합된 합리적인 체계로 이해하며, 목적 달성에 유리하도록 조직의 구조를 마련하여 구성원들이 목적에 효과적으로 이르게 하는 데 관심을 갖게 한다(Chung, Son, & Yoon, 2021: 110). 또한, 명령과 지시의 체계를 갖춘 관료조직으로서의 학교는 위계적이며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목적을 이루는 데 구성원들이 외적 보상과 처벌에 의존적이게 만들어, 구성원들이 “자기 이익”(Kang, 2017: 258)에 집착하게 하여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지배하는 경쟁적인 문화로 이끌었다(Chung, Son, & Yoon, 2021: 110). 반면, 학교를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새로운 시각의 등장은 계층화로 인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린 경쟁과 갈등, 그리고 불신의 문화를 극복할 해결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관점은 학교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조직적인 측면이 아니라,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학교를 이해해야 한다는 Sergiovanni(Joo trans., 2004: 25-28)의 주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학교의 구성원들이 인격적인 만남과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구성원들의 노력을 강조하는 Parker J. Palmer의 공동체 이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결국, 학교가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인격적인 만남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할 때,

가르침과 배움, 그리고 성장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학교에 대해 공동체적 입장의 접근은 ‘조직’으로서 기능적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발생했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학교의 공동체성 회복은 학교가 당면한 문제들을 자정(自淨)하여 학교가 지닌 교육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도록 이끄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논점에서 본고는 공동체의 개념과 공동체로서의 학교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오랜 역사를 가진 가톨릭교회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고, 공동체로서 가톨릭학교의 방향과 가톨릭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의 중심적 역할이 될 수 있는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의 의미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능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학교문화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로서 학교의 역할을 회복하고 강화시키는 교육적 접근법을 소개하여, 교육공동체로서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학교가 나아갈 방향과 그 실천적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공동체로서의 ‘학교’ 이해와 공동체성 함양

1. 공동체로서의 학교

사회학적 측면의 ‘공동체’ 개념은 자본주의체제가 위기에 직면할 때 등장한 개념으로서, 착취와 빈곤을 몰고 온 19세기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의 공동체’로 나타났고, 대중을 정치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든 20세기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대안으로 공동체주의의 공동체 회복이 제시되었으며, 21세기에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무한 경쟁의 삶으로 몰아넣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공동체’가 등장하였다(Moon, 2017: 44-45). 이 가운데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나타난 공동체 개념은 인간 개별의 경쟁보다는 협력과 화합을 강조하고 불평등보다는 평등을 지향하는 가치로서,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체제라 할 수 있다. 이는 경쟁과 분열로 파괴된 인간과 인간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며 삶의 질서를 재창조하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Kang, 2017: 194). 이와 같은 ‘공동체’ 개념의 등장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고 표준화된 평가도구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며 경쟁과 갈등의 문화가 지배적인 학교에 맞서 학교의 역할을 전환시키는 발판이 되었다. 즉, 학교에 대한 공동체적 개념의 적용은 새로운 관점에서 학교를 바라보게 하였으며, 학교 구성원들이 관계를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이루고 ‘나’에서 ‘우리’로 확대되는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적이며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건설하게 한다(Kim, 2005: 11-13).

학교공동체는 ‘교사학습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 또는 ‘교육공동체’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공동체적 차원에서 교육에 개입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Park & Kwon, 2021: 194). 그러나, 학교공동체가 올바른 공동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돌봄, 신뢰, 협동, 헌신을 실천하는 목적 공동체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Sergiovanni, Joo trans., 2004: 104). 우선, 학교공동체는 배움이 일어나는 전문적 공동체로서 학생들뿐 아니라,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도 동료성을 구축하며 서로 배우고 교육 전문가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Kang, 2009: 263). 또한, 학교공동체는 학교의 책임자인 교장과 교사들이 희생과 헌신, 열정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실천하고 공유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공동체로 성장하여야 한다(Kim, 2005: 9). 나아가, 학교공동체는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민주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Sergiovanni, Joo trans., 2004: 153).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상호의존성을 인정함으로써 공동선을 실천할 기회를 보장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자질을 가르치기 때문이다(Kang, 2009: 265). 그러나, Palmer는 진정한 학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인격적 만남을 강조한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학교공동체는 성공 중심적이며 경쟁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반 공동체주의적인 사람을 양성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구성원인 교사, 교직원, 학생은 서로의 감추어진 온전성을 찾기 위해 서로 연결되어 올바른 학교공동체를 구현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운다(Shim, 2018: 127). 이처럼 공동체로서 이해되는 학교는 학교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하도록 이끌어 주며 갈등적 상황을 완화하거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대감을 강화시켜 학교의 만족감을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함으로써(Kang, 2018: 482; Jeon & Park, 2017: 216) 학교가 나아갈 방향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2. 공동체로서 가톨릭학교

사회학적 공동체의 개념이 등장하기 오래전부터 가톨릭교회 내에는 ‘공동체’의 개념이 자리해 왔다. 가톨릭교회에서 등장하는 공동체의 개념은 일치의 관계를 이루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안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된 교회 구성원인 인간은 하느님과 일치의 관계를 이루도록 요청받으며, 동시에 교회공동체 구성원 간에 친교를 이루고 일치로 나아가도록 초대된다. 구성원 간의 친교와 일치를 강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바오로 사도가 그의 서간에서 밝힌 것처럼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1Corinthians 12: 14)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공동체는 ‘몸’이며 공동체에 속한 개인은 ‘지체’로서 간주 되어, 지체인 개인은 공동체인 몸과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몸’이라는 공동체와 함께 하는 ‘지체’가 기능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결코 몸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음을 일깨우는 것이며, 각 지체의 역할에 대한 고유

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그 지체들 간의 역할에 결코 우열이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구성원의 역할에 관계없이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며 몸과 긴밀히 연결되어 일치를 이루는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Moltmann은 교회에서 제시하는 공동체의 의미는 친교를 중심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에 타자를 위해 존재할 수 있는 희망적인 개념임을 강조한다(Scon, 2022: 64).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해하는 교회론적 시각은 학교를 공동체로 바라보는 가톨릭학교에도 자연스럽게 스며있으며, 가톨릭학교를 움직이게 하는 본질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즉, 공동체로서 가톨릭학교는 삼위일체의 공동체성을 닮아 친교를 통해 일치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요구받는다. 또한, 지체로서의 각 구성원들은 각자의 기능적 역할에 상관없이 인격적 존재로서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 안에서 각 구성원들을 받아들이며 친교를 통해 일치로 나아갈 역할을 부여받는다. 다시 말해, 교육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관계없이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로서, 그리고 하느님의 모상인 인격체로서 공동체 구성원들과 동등한 관계를 이루며 친교와 일치로 향해야 함을 알게 된다. 이처럼 교회론적 공동체성에 바탕을 둔 가톨릭학교공동체는 학습공동체로서의 구성원의 범위를 교사나 학생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넘어, 교육을 지원하는 교직원 모두가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강조하며 그 구성원 모두가 인격적 관계를 이루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인격적인 관계는 가톨릭학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복음화’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게 함으로써, 복음화에 바탕을 둔 그리스도교적 전인교육을 구현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Koo, 2011: 91-92). 특히, 친교(koinonia)를 통해 맺어지는 인격적 관계는 전례(liturgia)를 통하여 구성원 간의 일치를 도모하고, 친교에 바탕인 인격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실천(diakonia)해 나감으로써 가톨릭학교의 공동체성을 증거(martyria)할 내적인 힘을 기르게 한다.

안타깝게도, 입시경쟁의 소용돌이와 위계적인 문화에 사로잡힌 채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적 조직의 입장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가톨릭학교는 지체 간의 단절과 공동체성이 파괴되는 경험을 하며,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과 방향을 상실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Palmer는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것은 경쟁을 일으키는 차별과 편견, 불평등적 교육제도, 도덕과 정의관을 무너뜨리는 자본주의적 사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침해하는 개인주의적 요소이며,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전에 맞설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Lim, 2014: 224). 이러한 시각은 학교의 회복은 바로 공동체성의 복원에 있음을 일깨운다.

3.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를 통한 가톨릭학교의 공동체성 함양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담화문을 통해, 교회가 직면한 다원주의와 다양성의 환경을 풀어나가는 해법이며 교회의 쇄신 원리로서 ‘시노

달리타스'의 실천을 제안하였다. 시노달리타스는 교회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다수의 목소리를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식별과정이며 공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Souletie, Han trans., 2022: 97). 그리스어 'συν'(∞와 함께)과 'ὁδός'(길)의 합성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 라틴어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는 “하느님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 (COMMISSION TEOLOGICA INTERNAZIONALE, Park, An, & Choi trans., 2019: 12)을 의미하며, ‘하느님의 백성(Populus Dei)’인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간의 친교를 강조하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정신을 반영하는 실천적 노력이다. 즉, “‘하느님 백성의 교회론’은 세례받은 모든 이의 공통된 품위와 사명, 그리고 그들의 은사와 소명, 직무의 질서 있는 풍요로움을 강조” (COMMISSION TEOLOGICA INTERNAZIONALE, Park, An, & Choi trans., 2019: 15)하며, 공동체 구성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동시에 교회 구성원들 간의 일치를 도모하여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고무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시노달리타스의 실천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친교의 정신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며,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며 개방적이 되도록 이끌어 주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개방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는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게 하며, 이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나 장상은 보다 지혜롭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시노달리타스의 이 같은 특성은 공동체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의사결정을 이루는 데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무엇보다 시노달리타스는 교육공동체로서 가톨릭학교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원리로 고려될 수 있다. 즉, 교사, 교직원, 학생으로 구성된 학교공동체는 학교의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여정이며 참다운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경청하고 존중하며 다양성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노달리타스의 실천적 노력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형제애를 도모하고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게 할 뿐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개방적인 마음을 갖게 하여 교사와 교직원,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의 단절된 관계를 연결하고 회복시키는 가능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격적인 관계는 성적과 실력 중심의 문화, 경쟁과 갈등의 문화, 명령과 복종으로 뿌리내린 위계적 문화를 자정할 수 능력을 키우게 할 것이며, 파괴된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계를 복원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노달리타스의 실천은 친교를 통해 구성원들의 관계를 연결하여 구성원들의 공동체성을 강화시키는 데 분명한 나침반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특히, 대화와 소통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은 ‘나’에서 ‘우리’의 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톨릭학교가 지닌 교육적 방향으로 향하는 동력을 제공하게 된다. 나아가, 시노달리타스의 실천으로 회복된 공동체성은 참다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안내하며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인격적 성장으로 이끄

는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노달리타스의 실천만으로는 학교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지 모른다. 그 이유는 의사결정과정에 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가톨릭학교의 공동체성을 완성하거나 교육적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만나게 될 도전을 극복하는데 충분한 해답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동체성을 키우고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시노달리타스는 학교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이루는데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으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는 공동체를 연결시키고 일치시키며 교육의 방향을 제공할 가톨릭적인 가치를 표방하는 이정표가 필요함을 더욱 절실히 반영하고 있다. 즉, 이정표로 제시된 가톨릭학교의 목표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일치시키는 구심점이 되며, 시노달리타스를 통해 교육의 목표에 효율적으로 안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필자는 Don Bosco의 ‘예방교육’을 가톨릭학교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정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가톨릭가치를 반영하는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은 현대 사회의 교회 구성원들을 친교로 맺게 하며 함께 성화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시노달리타스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Kim, 2022: 148). 이는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이 공동체로서 가톨릭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극복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따라서, 필자는 Don Bosco의 예방교육을 통해 가톨릭학교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III. Don Bosco의 ‘예방교육’을 통한 가톨릭학교의 공동체성 회복

1. Don Bosco의 ‘예방교육’에 대한 이해

‘예방교육(the preventive system)’은 이탈리아 사제이며 살레시오수도회를 창립한 Don Bosco(1815-1888)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고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청소년들과 함께했던 교육적 경험을 체계화한 것으로, 당시 보편적으로 유행하던 ‘예방교육(preventive system)’을 확장시키고 발전시킨 돈 보스코의 교육방법을 일컫는다. 돈 보스코는 ‘오라토리오(oratorio)’¹⁾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37년의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1877년 『예방교육의 소고』를 저술하였으며,

1) 라틴어 ‘oratorium’에 근원을 두고 있는 ‘oratorio’는 이탈리아의 어휘로서 ‘대강당’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활용되어왔으며, 음악분야에서는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의 한 장르로 이해된다. 그러나, 19세기 돈 보스코가 사용한 ‘오라토리오(oratorio)’는 기도하는 성당, 놀이를 즐기는 운동장, 공부를 하는 학교, 일을 하는 일터, 친교를 이루는 집 등의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소고를 통해서 교육의 목적, 구성 요소, 그리고 교육에 대한 실천적 방법을 제시한다. Don Bosco는 예방교육의 구성 요소로서 ‘종교,’ ‘이성,’ ‘친절한 사랑’을 제시하는데, 각 요소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며 청소년들을 ‘정직한 시민, 착한 그리스도인’²⁾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²⁾(Bosco, 1877: 4).

이들 예방교육의 요소 가운데 예방교육을 움직이게 하는 본질적 힘은 ‘종교’의 요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종교’의 요소는 육화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 교육자들 역시 실천에 선행하는 자가 되도록 이끄는 힘이라 할 수 있다(Coelho, 2006: 68). 종교적 요소는 교육자들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본성적 모습과 인간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교육자들에게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일깨우도록 돕는다. 특히, 종교적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예방교육의 접근은 성체성사, 고해성사, 기도, 저녁말씀³⁾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하느님의 현존을 일깨우고 그들의 삶에 개입함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적 요소들까지도 하느님의 섭리의 선물로 받아들이게 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Coelho, 2006: 70). 나아가, 영혼을 돌보게 하는 양심에 대한 성찰은 가치관 정립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덕과 윤리적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공동선을 지향하는 윤리적이며 올바른 가치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Yoon, 2020: 290).

한편, 예방교육의 ‘이성’적 요소는 심리적·정서적 혼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전달하는 데 있어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간주 된다. 논리와 합리성의 가치로부터 출발하는 이성적 역할은 교육자들이 청소년들을 대하는 데 있어 감정적 상황을 피하도록 이끌어 주며, 절제되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게 한다. 교육자들의 이러한 이성적인 접근은 공정과 평등의 시각으로 청소년들을 대하게 하고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아 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Yoon, 2020: 290). 이처럼, 교육자들의 합리적인 태도는 학생들을 대함에 있어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학생들의 외부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그들을 한 인격체로 만나게 함으로써 교육자와의 신뢰를 건설하는 밑거름이 되는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돈 보스코는 비록 교육자들이 학생들의 잘못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더라도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은 결코 학생들의 행위를 바로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음을 경고하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만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Bosco,

2) 이탈리아에서 번역된 영어원문에는 “useful citizens and good christians”이라고 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살레시오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직한 시민,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통용된 용어를 사용함을 밝혀둔다.

3) 이는 돈 보스코가 오라토리오에 모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삶에 교훈적인 내용으로 하루를 마감하며 들려주는 전통에서 시작에서 시작되었으며, 청소년들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주는 하나의 종교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1877: 5).

마지막으로 ‘친절한 사랑’은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핵심적 요소로 이해된다. ‘친절한 사랑’은 인내와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그리스도적 사랑을 의미하며, 온유함, 친절함, 애정, 배려 등과 같은 덕행의 총체를 의미한다(Braido, Kang trans., 2017: 433). 돈 보스코의 교육에서 사랑의 실천은 단순히 교육자에 대한 사랑의 실천에 대한 강조를 넘어서, 교육을 받는 이들이 교육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음을 체험하게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부여하고 있다. 즉, 교육자의 사랑의 표현은 구체적인 방식으로 인식되고 전달되어 학생들이 교육자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만드는 방식이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친절한 사랑의 실천은 교육자와 학생 간의 교육적 관계를 정점으로 인도하는 핵심 수단이며, 교육의 목적으로 향하기 위해 교육자가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돈 보스코의 8번째 후계자인 Vecchi(1995: 29) 신부는 “돈 보스코의 교육은 영혼의 교육, 은총의 교육, 초자연적인 교육”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하느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인간 간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고 인간의 내면에 자리하는 하느님을 재발견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돈 보스코의 교육은 편견과 선입견, 차별에서 벗어나 한 인간을 인격체로 만나게 하고, 인간 상호 간에 대한 존중을 통하여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키는 인간성 회복의 치료적 교육학으로 제안된다(Yoon, 2020: 295).

2. 가톨릭학교 문화를 창조하는 ‘예방교육’

종교(religion), 이성(reason), 친절한 사랑(loving-kindness)의 핵심 요소로 구성되는 돈 보스코 ‘예방교육’의 실천은 경쟁과 갈등, 책임 없는 자유를 주장하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학교문화를 변화시킬 실마리를 제공한다. 특히, 학교문화의 변화를 주도할 학교 책임자와 교사들의 예방교육의 실천은 성적 중심적이며 입시 위주의 학교문화에 희생되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배제되지 않고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가톨릭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책임을 지는 윤리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학교문화를 건설하는 데 있어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1) ‘종교’적 요소의 실천을 통한 영적이며 윤리적인 가치 형성

예방교육의 가치인 종교적 요소의 실천은 가톨릭학교의 가치를 반영하는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종교학교로서의 가톨릭학교는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며 복음화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존재한다(Koo, 2011: 91). 이를 위해 가톨릭학교는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종교적 활동을 제공할 필요를 지닌다. 종교적 활동은 시기에 따른 다양한 전례적 행사뿐 아니라, 교리교육, 피정, 성지순례 등과 같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이 가톨릭의 가치를 자

연스럽게 내면화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종교적 특성을 지닌 활동들은 다양한 종교적 환경에 걸쳐 있는 학생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종교적 프로그램의 색채보다 학교가 제공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의 성격으로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즉, 종교적 활동은 가톨릭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선을 지향하며 윤리적인 가치가 학생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고안되어,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하느님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은 소풍, 음악회, 연극, 성인들의 축일을 활용한 축제, 심지어 운동과 같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을 통해 그 안에서 종교적 심성을 키우고 윤리적인 가치를 습득하며 하느님을 만날 기회로서의 체험적 활동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Braido, Kang trans., 2017: 479-494).

2) '이성'의 가치를 통한 존중의 문화 건설

예방교육의 구성 요소 가운데 '이성'의 실천은 위계적이고 성적 중심적이며 엘리트를 선호하는 학교문화로부터 학교의 구성원 모두를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존중의 문화로 바꾸어 나가는 데 중요한 실천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합리성에 바탕을 둔 이성적 태도는 학교의 책임자와 교사,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이어주는 구체적인 실천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고는 설득과 이해의 힘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를 대할 때 감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침착함을 통해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도록 이끈다. 이러한 태도는 외모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그리고,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인한 차별적인 시각과 선입견에서 자유롭게 하며 인간 그 자체를 만나도록 이끈다. 즉, 이성적인 태도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 등 외부적 조건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인격체로서 만나게 한다(Yoon, 2022: 105). 또한, 이성에 바탕을 둔 접근은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한 결과를 수용하도록 이끌며 개인이 지닌 한계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굴욕감이나 수치심으로 인한 감정적 저항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신뢰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인간성을 파괴하는 폭력, 학대, 개인주의와 같은 비인격적인 문화를 극복하고 존중의 문화를 건설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적 실천은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간을 자유롭게 만나게 함으로써, 인간 상호 간의 존중과 신뢰의 문화를 형성하는 근간이 되도록 이끈다.

3) '친절한 사랑'의 실천을 통한 관계의 문화 건설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에서 '친절한 사랑'은 예방교육을 실행하는 본질적 원리로 간주 된다. 돈 보스코는 교육자들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생들이 그 사랑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다(Bosco, 1884: 2). 이는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며 교육적인 효과가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나아가, 학생들이 교

육자들로부터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교육자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성찰하게 한다. ‘친절한 사랑’의 실천은 교육자들의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며, 학생을 대하는 교육자들의 “탈권위적인 태도,” “가족처럼 친밀한 접근,” “관심 보여주기,” “반갑게 맞아주기,”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존중하는 태도”로 구체화 되어 나타난다(Yoon, 2022: 100). 이는 교육자들의 언어뿐 아니라 교육자들의 실천적 행위에서 분명하게 반영되고 학생들에게 전달됨으로써, 교육자와 학생 간의 교육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이처럼, 친절한 사랑으로 건설된 교육적 관계는 교육자들이 의도하는 교육적인 방향으로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인도하며 학생들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근원적 힘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의 친절한 사랑의 실천은 구성원 상호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구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복음의 가치에 기초하는 친절한 사랑의 실천은 학생과 교사의 교육적 관계를 회복하고 상호작용을 증진시킴으로써 학교의 문화가 관계의 문화가 되게 하는 본질적 요소라 할 수 있다.

3. ‘예방교육’을 통한 가톨릭학교의 공동체성 건설

Miranda(2006: 105)는 하느님의 사랑에 자유로이 응답하도록 초대하는 돈 보스코의 교육방법을 “내적 자유로 이끄는 교육학”으로 정의하며, 학생들의 윤리·도덕적 가치를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윤리·도덕적 가치의 확립은 사회·경제적인 환경에 의해 파괴된 인간 본성을 회복하고, 개인의 이익과 능력을 우선시함으로써 생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상처받은 학교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지배적이며 권위주의적인 문화로 얼룩진 학교공동체를 존중과 포용의 문화로 변화시켜 나가게 하는 가치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예방교육을 실천하는 교육자의 역할은 청소년들이 자유로이 선택한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이끌고, 자유로운 정신 안에서 통합된 인격을 형성함으로써 거룩함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Miranda, 2006; 105). 그러므로, 예방교육의 적용은 구성원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복음화의 가치가 담긴 문화를 건설함으로써 학교공동체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가톨릭학교의 사명을 완성하도록 이끄는 교육적 대안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우선, ‘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예방교육은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다양한 종교적 활동을 통해 인간 내면을 바라보게 하고 나약한 인간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게 할 뿐 아니라, 양심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함으로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이 되도록 인도한다(Yoon, 2020: 290). 또한, 전례, 음악, 연극, 피정, 성지순례 등과 같은 활동 중심적인 종교적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종교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하고 종교적인 가치관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로써, 인간의 본성적 가치를 인

식하게 하고 인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음을 일깨우며 서로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공동체적 인간이 되도록 인도한다.

‘이성’적 요소는 각자의 인간이 공정하고 평등한 시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한다. 이성적인 접근은 편협하고 주관적인 시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각자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동등하게 바라보게 하며, 한 인격체로 각자를 만나게 하는 가치를 부여한다. ‘이성’적 가치를 실천하는 학교공동체는 구성원의 역할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각 개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교육자들의 이성적 태도의 접근은 그 어떤 학생도 배제함이 없이 학생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만나게 하고, 학생들이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편견과 선입견에서 자유롭게 하여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도록 격려한다.

무엇보다, 예방교육의 구성 요소 가운데 친절한 사랑의 실천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친밀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친밀하고 친근한 학교공동체를 건설하는 밑거름이 되게 한다. 특히, 친절한 사랑은 위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변화시켜 친근하고 편안한 가족적인 환경을 구축하게 만드는 실천적 원리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친밀하고 친근함이 조성된 교육적 환경은 교육자와 학생 간의 교육적 관계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인격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도모한다. 친밀성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적 관계는 교사가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고 교육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며, 학생은 교육자로부터 배운 지식과 가치를 수용하고 포용함으로써 지적, 인간적 성장의 동력이 되게 한다.

이처럼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의 실천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동시에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켜 교육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게 하며, 학교공동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말하자면, 가족적인 친밀한 환경을 구축한 교육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공동체가 되게 한다. 그러므로, 예방교육은 교육공동체가 가톨릭교회의 가치인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을 반영하며 학교의 공동체성을 복원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근원적 해결점을 제시하는 교육학이라 할 수 있다.

IV. 교육공동체로서 가톨릭학교 회복을 위한 실천적 전략

1. 사명을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Parker J. Palmer(Lee trans., 2009)는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의 영성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교육을 통해 회복된 공동체는 인격적인 배움이 일어나고, 공동체로부터 배

움을 얻을 수 있으며, 개방성과 현대의 정신을 체험하도록 이끈다(Lim, 2014: 232). 그래서, 교육의 영성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가치에 스며들고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구성원들이 사명을 수행하도록 이끈다(Miñon, 2017: 414). 이는 학교가 교육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을 한데 모으며,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담아내는 교육적 영성을 지닐 필요성을 보여준다. 교육의 영성은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를 지지하고, 교육자의 교육행위를 통해 드러나게 하는 교육 실천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육의 영성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행동에 대한 변화를 주며, 공동체로서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돕는다(Yoon, 2022: 101). 또한, 교육의 영성은 학교 공동체가 지향하는 교육목표에 잘 반영되는 교육행위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나가게 하는 교육의 지향점이 되며, 공동체 구성원들을 한데 모으는 구심점이 된다. 이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 가치를 공유하고 실행함으로써 학교가 지향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살아가게 하며 공동체성을 형성해 나가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Don Bosco의 교육학인 ‘예방교육 영성’은 가톨릭학교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를 구현하는 실천적인 방법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학생들을 ‘정직한 시민,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성하려는 교육목표는 전인교육을 통해 복음화의 사명을 수행하고자 하는 가톨릭학교공동체의 목표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이를 구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예방교육 영성의 실천이 공동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교육공동체로서 가톨릭학교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적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사, 학생,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교공동체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이며 주체로서 인식하도록 교육적 가치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교육적 가치의 공유는 교육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교육적 가치를 실천하도록 초대됨을 의미하며, 교육 가치의 실현을 위해 함께 나가도록 이끈다. 또한, 구성원 모두의 참여는 학교공동체가 ‘집’과 같은 교육적 환경이 변화되도록 만들고,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환영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발전시켜 공동체성을 향상시킨다(Martelli et al, Kang trans., 2017: 128-131). 무엇보다, 공동체로서 학교는 교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교사뿐 아니라,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이, 학교를 관리하는 이, 문지기 할 것 없이 학교공동체에 있는 모든 이들이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초대하여야 하고, 모두가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개방성을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Vigano, Lee trans., 1999: 36). 그러므로, 공동체로서 가톨릭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역할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두를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의식하도록 초대하고 공동체성을 함께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적 행위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공동체 구성원과의 교육적 가치를 공유하고 각 구성원이 교육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나게 될 때, 교육공동체로서 학교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교육적 사명을 완성해 나가게 될 것이다.

2. 공동체로서 가톨릭학교 교육자들의 교육 태도

예방교육을 실천했던 돈 보스코는 “교육은 마음의 일”(Ribotta, 1995: 108)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교육적 태도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울 뿐 아니라,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교육적 관계를 이루는 교사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교사의 자질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는 교사들의 교육행위에 따라 학생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긍정적인 교육의 결과를 얻기도 하고(Kim & Hwang, 2011: 93-94), 반대로 교사들의 부적합한 행위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결과를 얻기도 하기 때문이다(Lee, Kim, & Kim, 2015: 436). 이러한 면에서, Seo, Chun, & Eom(2008: 296)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로서의 전문적 능력과 더불어, 교사들 간의 협력을 이루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아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관심, 지지, 칭찬, 가족적 분위기 등의 요소는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이루고 긍정적인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 생활의 적응을 돕고, 교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Lee & Kim, 2009: 2508).

교육공동체로서 학생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건설하도록 도와주는 교사들의 태도는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을 교육의 실천적 가치로 삼는 ‘돈보스코학교’의 교육자들의 교육적 태도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교육공동체로서 ‘돈보스코학교’ 교육자들의 교육 태도는 ‘친근하게 먼저 다가가기,’ ‘관심과 환대로 표현하는 사랑,’ ‘경청을 통한 존중,’ ‘공정과 원칙에 의한 합리적 접근,’ ‘열정적인 마음’ 등으로 실천하는 교육자들의 태도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Yoon, 2022: 100-108). 공동체로서 실천하는 ‘돈보스코학교’ 교육자의 태도는 예방교육이라는 공통된 교육적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자들을 일치시키는 동력이 된다. 이는 교육자들을 연결하고 소통하게 하며, 교육적 가치에 따른 교육활동에 교육자들이 상호 협력하도록 이끄는 원리이다. 이 같은 교육의 가치는 교육공동체의 일치의 구심점이 되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 연결되도록 도와주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한다. 이는 교사들과 학생들 간의 단순한 교육적 관계를 넘어 공동체 구성원 간의 인격적 관계를 이루게 하여, 학생들 모두가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인식하게 하고 학생들의 교육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들의 교육적 가치를 변화시키고 교육적 행위에 그 가치가 반영되도록 이끄는 것은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와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의 실천은 공동체로서 학교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교사와 교사, 교사와 교직원, 교사와 학생을 인격적 관계로 연결하여 교육공동체로서 성장하게 할 뿐 아니라, 교육적 가치의 구현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실천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면은, 종교, 이성, 친절한 사랑으로 구성된 예방교육은 자유, 책임, 진리, 연대, 봉사, 정의의 가

치에 입각한 가톨릭 교육철학을 구현하는 실천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는 가톨릭 학교 교육자가 공동체 성원으로서 친교를 이루고, 개방적이고 겸손한 태도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다가가게 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을 일치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Kim & Kim, 2021: 146-148). 즉, 예방교육적 태도는 가톨릭학교공동체의 구성원인 교육자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본질적인 가치로서, 전인교육을 통해 복음적 사명을 지니는 가톨릭학교의 공동체성을 도모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자들의 예방교육적 접근은 교육공동체로서 가톨릭학교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시노달리타스의 구현 과정이며 실천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가톨릭학교의 공동체성 회복을 촉진하는 교육적 동반

‘교육적 동반’은 종교, 이성, 친절한 사랑으로 구성된 돈 보스코 ‘예방교육’을 구현하는 실천적 방식이다. 교육적 동반의 의미는 이태리어 ‘assistenza’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교육적 현존,’ ‘교육적 동반,’ ‘청소년들과 함께 있는 것’ 등 교육자의 이해와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언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Yoon, 2020: 290). 교육자들의 현존은 ‘예방교육’을 실천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며, 예방교육의 각 요소의 특징들이 교육적 동반을 통해 구현되게 하는 교육적 실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적 동반’은 교육자들이 청소년들과 가능한 많은 시간을 함께하도록 요청하며, 이를 통해 교육자들은 위협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보호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교육자들의 교육적 동반은 청소년들이 현재의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며, 미래의 삶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자들의 ‘교육적 동반’은 우선 청소년들과 존재론적 차원에서 함께 하는 것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 존재로서 함께 하는 교육자의 동반은 청소년들이 있는 곳에 교육자가 현존함으로써 교육자들이 청소년들에게 먼저 다가가게 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도록 이끈다. 이러한 눈높이 접근은 교육자들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여 그들과 함께 소통과 공감의 장을 넓혀나가도록 이끌어 준다. 특히, ‘친절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청소년들의 눈높이로 다가가는 교육자의 동반은 청소년들과의 친밀감을 드높이며 교육적이며 인격적 관계가 되도록 발전시킨다. 무엇보다,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을 공유하려는 교육자들의 동반적 노력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하고, 그들이 직면한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신뢰를 쌓게 하고 그들이 교육자들에게 마음을 개방하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렇듯, 친절한 사랑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교육적 동반은 교육자와 청소년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여 청소년들을 교육적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토양이 된다.

또한, 친절한 사랑을 기반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교육적 동반은 교육자들이 청소년들을

존중하며 공평과 평등의 가치에서 그들을 만나게 한다. 이성에 바탕을 둔 교육적 동반은 교육자들이 청소년들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이나 외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개방적인 마음으로 다가가게 한다. 나아가, 동반을 통해 청소년들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인식하게 된 교육자는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태도로 다가가며,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통해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 주는 기회를 얻게 된다. 친절한 사랑과 이성에 기초하는 교육자의 태도는 청소년들이 감정적 저항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성찰하도록 이끌며, 그들 스스로 잘못된 행위를 고쳐나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이처럼 이성적 접근을 통한 교육적 동반은 청소년들의 나약함을 설득하고 그들의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여, 그들이 교육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이끈다. 그리고, 교육자들의 종교적 활동에 대한 초대는 청소년들에게 영적 체험과 인간에 대한 나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윤리적·도덕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영적 인간이 되도록 이끌어 준다.

무엇보다 교육적 동반의 실천은 교육자들의 열정에서 드러나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 즉, 참된 교육적 동반은 교육자의 희생을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교육자는 학생들과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돈 보스코는 교실에서 만나는 교사와 학생은 배움과 가르침의 관계에만 머물러 있을 뿐이며, 교육자와 학생의 참된 교육적 관계는 쉬는 시간이나 오락 시간에 형성된다고 강조한다(Bosco, 1884: 3). 교육자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 실천된 교육적 동반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청소년들이 교육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이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적인 상호작용은 교육자가 제시하는 교육적 가치로 청소년들을 이끌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된다. 이처럼 예방교육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적 동반은 교육자와 학생의 관계를 이어주며, 학교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실천적 전략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V. 결 론

학교가 교육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구성원들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은 인격적 만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신뢰와 친밀한 관계를 통한 인격적 상호작용은 학생들의 성장뿐 아니라 교육자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고 정체성을 강화하여, 구성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이끌어 준다(Yun, 2008: 169). 즉, 인격적 상호작용은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들과 연결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구성원들을 연결하는 ‘상호연결성’은 교육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Shim, 2018: 142).

이러한 측면에서, 예방교육의 교육적 실천은 구성원들 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관계를 촉진시켜 공동체로서 가톨릭학교의 회복을 촉진시키는 적극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예방교육의 실천적 전략인 교육적 동반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교육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친밀하고 친근한 교육적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지위나 역할에 상관없이 구성원들이 인격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교육적 동반의 노력은 가톨릭학교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공동체성을 지속시키기 위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Reference

- Bosco, J. (1877). *The preventive system in the education of the young*. Critical eds. Braid P. (Laws, P., Trans & Notes). Retrieved April 4, 2022 from <https://sites.google.com/site/dbway2010/resources>
- Bosco, J. (1884). *The "Letter from Rome."* Critical ed. Braid, P. (Laws, P., Trans & Williams, G Modification). Retrieved May 14, 2022 from <https://sites.google.com/site/dbway2010/resources>
- Braido, P. *Prevenire non reprimere*. 강연중 옮김 (1999).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 억압이 아닌 예방으로.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 Chung, K. S., Son, H. H., & Yoon, K. J. (2021). A Study on Teacher Agency in the Process of Forming in a Community Culture in innovative School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16(4), 109-136.
- Coelho, I. The preventive system as philosophy and method. *Journal of Philosophy and Education*, 17(1), 67-80.
- COMMISSIONE TEOLOGICA INTERNAZIONALE. *La Sinodalita Nella Vita e Nella Missione Della Chiesa*. 박준양, 안소근, 최현순 옮김 (2019).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Demaine, J. (2003). Social reproduction and education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in Sociology of Education*, 13(2), 125-140.
- Jeon, H. Y. & Park, J. K. (2017). Meta Analysis Education Programs in the Educ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3), 205-226.
- Kang, H. Y. (2018). A Study on the Positive Transformation Process of Innovative School Students-A Case Study base on Grounded Theor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4(5), 471-498.

- Kang, S. D. (2007). Evaluation and Prospect on the Movement of Alternative Community. *Radical Review*, 32, 194-218.
- Kang, Y. T. (2009). A Study on Developing a Christian Model of School Community.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24, 255-279.
- Kim, S. M. & Hwang, J. T. (2011).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Socioeconomic Status with Teachers' Collective Responsibility for Learning.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20(4), 77-98.
- Kim, S. P. (2022). An Interpretation of the Synodality through Don Bosco' Preventive Education: to Model of the Church Renewal from Youth Ministry. *Theology and Philosophy*, 40, 141-169.
- Kim, Y. H. (2005). Conditions for Building Community in Schools. *The Journal of Korea Education*, 32(2), 3-29.
- Kim, Y. O. & Kim, K. Y. (2021). The Ministry of Lay Teachers in Catholic Schools: Focusing on the threefold ministry of Chris. *Journal of Human Studies*, 44, 125-165.
- Koo, B. M. (2011). Mission of Education for the Whole Person in Catholic Schools, *The Catholic Philosophy*, 17, 83-134.
- Lee, W. Y. & Kim, D. I. (2009). Facilitating Factors for Successful School Adjustment Perceived by Alternative School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4), 2495-2519.
- Lee, Y. S., Kim, H. J., & Kim, H. K. (2015).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and middle school students' maladjustment at school lif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12), 413-442.
- Lim, Y. T. (2014). Spirituality of Education for the Recovery of Community: Park Palmer's method.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40, 219-244.
- Martelli, A., Loots, C., Antonysamy, M. C., Bambozzi, C., Leoni, E., García F. ... & Moráis. *Salesian Youth Ministry, Frame of Reference*. 강연중 옮김 (2017). 살레시오 청소년 사목-기틀.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 Miñon, G. C. (2017). Work spirituality, work ethics, and organizational justice as related to job performance amongst state university educators. *Journal of Teaching and Education*, 07(01), 407-418.
- Miranda, A. (2006). The religious and ethical dimension of the educative system of Don Bosco. *Journal of Philosophy and Education*, 17(1), 99-106.
- Moon, S. H. (2017). Structural Change of Community Concept. *Culture and Politics*, 4(4),

43-68.

- Palmer, J. P. *To know as we are known: Education as a spiritual journey*. 이종태 옮김 (2009).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서울: IVP.
- Park, S. H. & Kwon, Y. Y. (2021). Success Factors of School Gemeinschaft in the Case of Eichendorf Secondary School in Germany.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9(2), 191-209.
- Ribotta, M. (1995). Touch love is not the answer-Don Bosco's Views on Punishment. *Journal of Salesian Studies*, 6(1), 81-108.
- Seo, D. M., Chun, W. K., & Eom, E. N. (2008). Exploration of the Process of Being a Good Teacher.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12(2), 261-303.
- Seon, Y. H. (2022). Moltmann's Ecclesiology as a Community: Focusing on the Church in the Power of Holy Spirit. *Christian Cultural Studies*, 25, 39-64.
- Sergiovanni, T. J. *Building Community in Schools*. 주철안 옮김 (2004). 학교 공동체 만들기. 서울: 에듀케어.
- Serna, G. R. & Woulfe, R. (2017). Social reproduction and college access: Current evidence, context, and potential alternatives. *Critical Questions in Education*, 8(1), 1-16.
- Shim, Y. H. (2018). A Study on the Recovery of "interconnection" among Educational Community Members Based on Palmer's Community Theory Young. *Theology and Society*, 32(4), 111-148.
- Souletie, J. L. (2022. 5. 3-4). *La modernité: une chance pour un épiscopat dans la synodalité de l'Église?* 한민택 옮김 (2022). 근대성, 교회의 시노달리타스 안에서 주교직을 위한 기회인가? 한민택 사회. 시노달리타스와 한국교회의 수용. 수원가톨릭대학교 제42회 국제 학술발표회, 수원.
- Vecchi, E. J. (1995). Indicazioni per un cammino di spiritualità salesiana, AGG 354.
- Vigano, E. *The Salesian brother*. 이선비 옮김 (1989). 살레시오 수사.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 Won, J. Y. (2009). Associations among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Social Capital within the Famil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9), 125-150.
- Yoon, M. K. (2020). The effectiveness of the Preventive System in the lens of social learning spectrum: An exploratory case study of a youth delinquency camp in South Korea. *Education Research Journal*, 10(10), 286-297.
- Yoon, M. K. (2022).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Educational Behaviors and Impacts of the Don Bosco School Community Approach on Students who had Experienced School

Maladjust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60(2), 89-119.

Yun, H. S. (2008). Importance of Humane Interaction in Practice of Teacher's Role.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13(2), 149-175.